

# 1960~80년대 재일잡지미디어 지형과 재일문화\*

이 승 진\*\*

(e-mail : missest@daum.net)

## <목 차>

- |                           |                         |
|---------------------------|-------------------------|
| 1. 서론                     | 4. 1980년대 재일잡지 지형과 재일문화 |
| 2. 1960년대 재일잡지의 전모와 재일사회  | 5. 결론                   |
| 3. 1970년대 재일잡지와 지식인담론의 출현 |                         |

キーワード：在日朝鮮人(Zainichi Korean), 在日雜誌(Zainichi Magazines), 在日文化(Zainichi Culture), 在日社会(Zainichi Society), 1960~80年代(From 1960s to 1980s)

## 1. 서론

재일조선인<sup>1)</sup>잡지는 해방 직후부터 재일사회의 다양한 양태를 반영하면서 전개해 왔다. 재일사회를 둘러싼 정치적 요동 속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창이자 재일조선인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발신하는 통로로서 재일잡지는 기능해온 것이다. 재일매체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40·50년대는 잡지의 ‘창간과 폐간을 둘러싼 일종의 역동성이 존재했던 시간<sup>2)</sup>’이었다. 확인된 것만으로도 60여종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367)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진입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건국대학교, KU연구전담교수, 비교문학

1) 본고는 정치적인 분단 상황을 배제한, 민족적인 루트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재일조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하 기술의 편의상 재일조선인잡지는 재일잡지로, 재일조선인사회는 재일사회로 약칭하여 표기한다.

2) 이승진(2018) 「진후 재일잡지미디어 지형과 재일사회-1959년까지의 태동기를 중심으로」 『韓日民族問題研究』 35, 韓日民族問題学会, p.119.

이 넘는 잡지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져간 이 시기는, 재일본조선인연합(조련)으로 상징되는 기관지의 전성기로 평가할 수 있다. “잡지 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었고, 정제된 잡지 형식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기관지, 오피니언지, 문예지, 오락지, 종교지, 생활 정보지 등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매체가 재일조직의 근거리에서 제작-유통-소비되<sup>3)</sup>는 환경은 정치적 자장 아래에서 대다수 재일잡지들이 첫걸음을 떼어야 했음을 말해준다.

주의할 점은 이 시기의 ‘정치적 자장’은 결코 일관되고 균질한 흐름 속에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재일좌파조직을 중심으로, 조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로 이행한 정치 환경은, 실은 이른 시기부터 이 사상을 지지해온 재일사회 구성원들에게서조차 다양한 이의제기와 의문의 대상이기도 했다. 가령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일부 잡지에서 분출된 ‘예술과 정치 논쟁’과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본어 표현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라는 대의를 넘어선 재일사회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조국의 분단 현실과 일본사회의 억압이라는 외재적 요인 앞에서, 결국 단일한 목소리를 발신하는 방향으로 재일사회와 매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재일사회의 출발 단계부터 조국과 일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재일조선인의 문제의식은 받아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좋다. 최근 1940·50년대 재일잡지 지형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 매체들 속에서 재일사회의 원초성이 확인 가능하다는 연구자들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sup>5)</sup>.

본고는 이러한 연구 흐름의 연장선에서 1960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간된 재일잡지의 전모를 살펴보고, 그 매체사적 의미를 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귀국사업과 1965년의 한일협정, 그리고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과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같이 격변하는 조국 정세와 그에 따른 일본과의 관계 변화가 재일조선인의 내셔널 아이덴티

3) 이승진, 위의 글, p.120.

4) 50년대 중반 이후 재일좌파 조직은 기존의 국제주의적 공산당 운동방식에 벗어나, 북한 체제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집단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 간다. 그 과정에서 ‘조선어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기존의 민족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관점의 조선어사용과는 다른 질감으로 쟁점화 된다. 또한 정치 선전적인 예술 표현에 대한 반발로 예컨대 『진달래』(1953~1958)와 같은 잡지에서는 ‘정치와 예술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5) 1940·50년대를 시야에 둔 재일잡지 연구로는 소명선(2017)의 『재일한인 에스닉 미디어의 계보와 현황-에스닉 잡지를 중심으로-』, 『재일디아스포라문학의 글로벌리즘과 문화정치학』, 소명)과 송혜원(2014)의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가 주목할 만하다.

티의 재구성을 재촉하던 때였다. 재일 2·3세대가 성인이 되어 재일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부상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일의 독자성’이 모색되면서 재일사회는 정치담론과 문화의식에서 다양한 변용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조용하듯 재일잡지는 정치 일변도의 문법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다변화하는 재일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련된 재일지식인 담론을 주조하는 한편, 다층적인 재일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기 시작하고, 그 결과 『한양』, 『삼천리』, 『청구』, 『민도』와 같이 재일잡지사 전체를 놓고 봐도 대표 잡지라고 불릴만한 매체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매체사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의 재일잡지 연구는 개별 잡지 연구라는 틀에 여전히 갇혀 있다. 그 이유로 우선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구성한 잡지들이 등장하면서 하나하나의 매체가 지닌 특징과 의미를 묻는 작업이 선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행 주체가 다변화하면서 발간된 잡지의 전수 조사에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40·50년대 잡지 흐름에 주목한 거시적 연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야 비로소 출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조사 범위와 방법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재일잡지 지형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글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하나의 잡지 매체를 둘러싼 해석이 다양한 맥락과 관계망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일잡지 전체상에 주목한 연구가 선결되어야 한다”<sup>6)</sup>는 물음이 1960년대 이후 재일잡지 연구에도 매우 유효하다는 판단이 이글의 출발점이다. 더불어 최근 한일 양국에서 빠르게 진행되어온 개별 잡지 연구의 실적들이 유의미하게 축적되었다는 점도 잡지 지형 연구를 위한 현실 조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960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로 고찰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1960년을 시작점으로 삼은 이유는 본고가 1950년대까지의 잡지 지형 연구의 후속 연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이후 재일잡지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재일잡지를 포함하여 일본의 잡지 매체를 둘러싼 환경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판단에서 1990년 이

6) 이승진, 위의 글, p.109.

전까지를 고찰 시기로 구획하였다<sup>7)</sup>.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재일잡지 지형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둘 것이다.

## 2. 1960년대 재일잡지의 전모와 재일사회

1960년대 재일사회는 1940·50년대의 정치·문화적 자장 안에 놓여 있었다. 소련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이해관계 변화로 결실을 맺은 북한으로의 귀국사업이 본격화되면서<sup>8)</sup>, 재일사회의 관심사는 여전히 조총련과 북한사회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1960년대는 그동안 대립을 반복해온 조국의 남쪽에서 정치적 격변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동으로 촉발된 4·19 혁명, 그리고 이듬해 벌어진 5·16 군사쿠데타는 한국현대사의 명과 암이 숨 가쁘게 교차한 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군사 정권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경제 발전 모델을 시급히 확립해야 했고, 때마침 식민 지배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일본이 이웃해 있었다. 정치와 경제를 둘러싼 양자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일국교정상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재일사회와 한국 내의 수많은 반발을 뿌리친 박정희 정권은 결국 1965년 6월 22일 ‘한일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재일사회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반대한 한일협정은, 역설적이지만 재일조선인의 관심을 한국으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며 일어난 ‘6·3사태’와 같이,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신음하듯 발신해온 한국 대중들의 목소리에 동조했던 경험은, 조국

7) 이승진은 그의 글((2017) 「재일조선인잡지 재일잡지 『호르몬문화』 연구」 『日本學報』 113, 韓國日本學會, p.124.)에서 “잡지미디어 연구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1990년대는 재일잡지를 둘러싼 출판환경의 변화가 재일조선인 사회의 변화와 호응하는 형태로 찾아왔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별된다. 외부적으로는 일본 미디어의 다양화와 그에 동반한 활자 매체의 쇠퇴가 잡지 매체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단순한 세대교체의 차원을 넘어 표현의 주제로 3세대가 부상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 내의 문화 및 담론이 다원화되었고, 집단적 층위의 문제의식이 더 이상 재일잡지를 통해 표출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8) 강상중은 호루쇼프의 레닌비판이 파장을 불러오면서 북·소관계가 냉각되었고, 소련이 아닌 외부에서 인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했다는 북한의 필요성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귀국운동이 실현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姜尙中(2004) 『在日』 講談社, pp.34-35.)

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향으로서 한국이라는 장소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동질성을 피부로 체감한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일협정에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어업에 관한 협정' 외에,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 부족 조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협정은 명확하게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재일사회에 한국이라는 존재를 현실적인 존립 조건 중 하나로 재인식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군사정권 내에는 한국의 산업화에 일본의 경제적 보상과 조력뿐 아니라 재일사회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금융, 철강, 원양어업, 경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 모델을 배우는 과정에서 재일사회가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음에 한국 정부는 주목했고, 한일협정을 계기로 재일조선인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재일사회 내에서도 낙후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국의 요청에 응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게 된다. 요컨대 '제주 4·3항쟁'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상호 간의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한일국교정상화라는 현실 조건의 변화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이라는 대의명분을 촉매제로 좁혀지면서, 그동안 치우쳐 있었던 재일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좌표를 조심스럽게 오른쪽으로 옮기기 시작한 때로 1960년대를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재일잡지는 이러한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전개한다. 좌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 내지는 단체를 중심으로 재일사회의 이념적·사상적 동질성에 기반 한 내용을 발신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었으나,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이지 않았던 '민단' 계열의 잡지들이 군사 정변과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남쪽에 대해 오히려 강한 비판을 가하게 된다.<sup>9)</sup> 재일사회 내의 한국 정세를 둘러싼 좌우 대립이 일종의 소강상태에 빠진 것인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사회의 올바

9) 한국정부의 '민단'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1968년 무렵부터 시작된다. 이후 민단은 점차 방공투쟁과 유신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 단체적 성격으로 변질되고, 197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國際高麗学会日本支部 『在日コリアン辞典』 編集委員会(2010) 『在日コリアン辞典』 明石書店, p.74. 참조)

른 변화를 추동하는 방향으로 잡지의 내실과 관심사를 이행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전 시기와 분명히 결을 달리 하고 있었다.

한편 동시기의 일본 잡지 시장을 살펴보면, 시사, 예술, 영화, 패션, 만화 등의 다양한 분야로 잡지의 영역이 무섭게 확장되어간 반면<sup>10)</sup>, 40·50년대 제일잡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는 급격히 힘을 잃고 있었다.

60년대부터의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소득증대정책으로 소비와 레저 붐이 일었고, 문고본과 대량산업 출판물이 속출하였다. 소비재적인 출판물이 증가하고 독자도 ‘소비자’로서 위치 지어졌다. 출판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된 때로 이 시기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백과사전 붐, 전집 붐이 일어나고 고가의 책들이 팔렸다. 또한 정치, 경제서가 연이어 출판되었고, 경영 관련 서적 붐도 일어났다<sup>11)</sup>

가령 전통적인 문예 영역의 잡지에서 발견되는 ‘반예술 운동’은 이 시기 일본 미디어 시장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sup>12)</sup>, 영역을 가리지 않고 표현의 다양성이 잡지 전반에 걸쳐 확장되기 시작한다. 일본 대중의 소비 욕망이 사상보다는 매체의 다양성에서 표현의 자유를 모색하는 쪽으로 이행하였고, 잡지장르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다채로운 출판물을 제공함으로써 1960년대 일본 출판 시장에서 그 선봉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 출판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제일사회에는 부재했다. 사회주의 계열 잡지를 바라보던 관심의 퇴보와 문화 전반에 걸친 표현 영

10) 四方田犬彦는 그의 저서((2018), 『1968年 文化』 筑摩書房)에서 1960년대 후반 일본잡지계에서 영화, 만화, 사진, 패션 잡지들이 이른바 디자인 비평성을 무기로, 잡지의 활황을 이끌었다고 지적한다. 가령 1968년 『월간 빅코믹스』, 『주간 소년메가진』, 『주간소년점프』 등의 히트 상품이 메이저 출판사에서 차례차례로 발간되면서, 1960년대 초반 『가로』와 같은 소규모 월간만화잡지로 출발했던 만화잡지가 잡지 시장의 중심부로 진입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1960년대 후반은 대중문화와 평론을 가리지 않고 출판 붐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잡지가 위치했다.

11) 藤竹暁(2012) 『図説 日本のメディア』 NHK出版, p.122.

12) “반예술’ 운동인데, 이 운동은 기존 미술에 대한 비판적인 의의제기 자체를 표현으로서 표출한 운동이었다. 기존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반’ 혹은 ‘비’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의견과 감수성이었다. 이 운동은 정치적인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감각과 기분은 개별 사안의 투쟁목적을 넘어서 정치 및 권력체제와 대치하는 사고를 양성했다. 그로 인해 미술과 디자인, 사진 등을 비평대상으로 삼았던 잡지 편집자와 집필자들도 장르횡단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이 동인지적인 출판형태를 포함하여, 다양한 잡지로 간행된 것이었다.” (四方田犬彦 編(2018), 위의 책, p.353.)

역의 확대가 교차하던 이 시기에 재일사회의 주요한 문화 창작 층은 1세대였고,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기관지 성격의 잡지창간에 함몰되어 있었다. 조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규정해온 관성에서, 이들은 정치와 일상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버릴 수 없었고, 결국 전통적인 표현의 범주 안에 재일잡지의 내실을 가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더불어 급변하는 조국 정세는 새로운 문화 창작 층으로서 참신한 문제 제기를 주도해야 할 2세대들에게, 자신들의 관심사를 재일사회 주류의 목소리와 영합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환언하면 인접한 일본 출판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 흐름이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잡지는 창작자와 소비자 양쪽에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정치’라는 경직되고 협소한 장소 안에서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색했던 때가 1960년대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 이 시기에 발행하기 시작한 재일잡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1960년대 발행 재일잡지 총 35종】 13)**

잡지명	창간년월	발행기관	잡지의 성격/언어
새로운 세대 (新しい世代)	1960	조선청년사(朝鮮靑年社)	문예 /일본어
현해(玄海)	1960	현해사(玄海社)	오피니언 /일본어
문학예술 (文學藝術)	1960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在日本朝鮮文學藝術家同盟)	문예 /조선어
고려(高麗)	1960 (추정)	와세다대학 한국문화연구회 (早稻田大韓國文化硏究會)	문학 /일본어
과연(科研)	1960 (추정)	재일본조선학생 관동지방 과학연구추진위원회 (在日本朝鮮學生關東地方科學硏究推進委員會)	오피니언 /일본어
통일평론 (統一評論)	1961	통일평론사(統一評論社)	오피니언 /일본어
월간 조선자료 (月刊 朝鮮資料)	1961	조선문제연구소(朝鮮問題硏究所)	역사 /일본어
조선연구 (朝鮮研究)	1961	일본조선연구소(日本朝鮮硏究所)	오피니언 /일본어
고려회보 (高麗會報)	1962	고려학사구락부(高麗學士俱樂部)	문예 /일본어
직하(稷下)	1962	케이오의숙대학 코리안 학생 클럽	문예

13) 이하 이 논문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목록은 일본 현지 조사를 거쳐, 일부 호라도 확인한 사례에 한정된 것이며, 실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잡지는 실존했음이 분명한 경우라도 일단 제외했음을 밝혀 둔다.

		(慶応義塾大学コリアン学生クラブ /KKSC)	/일본어
한양(漢陽)	1962	한양사(漢陽社)	문예/일본어
조선연구월보 (朝鮮研究月報)	1962	일본조선연구소(日本朝鮮研究所)	역사 /일본어
조선	1963	도쿄대학조선문화연구소 (東京大学朝鮮文化研究会)	문화 /일본어
조양(朝陽)	1963	리얼리즘연구회(リアリズム研究会)	문학/일본어
여명(黎明)	1963	재일한국학생동맹오사카본부 (在日韓国学生同盟大阪本部)	문예 /일본어
광야(曠野)	1964	재일한국인학생/청년문화예술애호클럽 (在日韓国人学生・青年文学芸術愛好クラブ)	문예 /일본어
코리아스포츠 (コリアスポーツ)	1964	코리아스포츠타임즈사 (コリアスポーツタイムズ社)	체육 /일본어
군중문예	1964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도쿄도본부기관지	문예 /조선어
조국(祖国)	1964	시대사(時代社)	오피니언 /조선어
오늘의 조선 (きょうの朝鮮)	1964	외국문출판사(外国文出版社)	기관지 /일본어
한국문제연구 (韓国問題研究)	1965	한국문제연구회(韓国問題研究会)	오피니언 /일본어
한국시사(韓国時事)	1965	한국시사사(韓国時事社)	오피니언 /일본어
조국통일을 향한 길 (祖国自主統一への道)	1965	호세이대학 한국문화연구회 (法政大学韓国文化研究会)	문화 /일본어
법적지위문제 (法的地位問題)	1965	재일한국학생동맹 중앙총본부 (在日韓国学生同盟中央総本部)	오피니언 /일본어
침성대(瞻星台)	1966	시바우라공업대학 한국문화연구회 (芝浦工大韓国文化研究会)	문화 /일본어
여성(女性)	1966	한국학생동맹 중앙총본부 (韓国学生同盟中央総本部)	여성문집 /일본어
원점(原点)	1966	양석일(梁石日)	개인문집 /일본어
황해(黃海)	1967	황해발행소(黃海発行所)	개인문집 /일본어
청구(靑丘)	1967	주오대학 한국문화연구회 (中央大学韓国文化研究会)	문화 /일본어
한국농업의 현황과 전망 (韓国農業の現状と展望)	1967	메이지대학 한국문화연구회 (明治大学韓国社会文化研究会)	경제 /일본어
한국 경제의 구조와 문제점	1967	재일한국학생동맹 중앙총본부 (在日韓国学生同盟中央総本部)	오피니언/ 일본어

삼천리(三千里)	1968	고가쿠인대학 코리아 엔지니어링 연구회 (工学院大学KOREA ENGINEERING研究会)	과학/일본어
일본 속 조선문화 (日本の中の朝鮮文化)	1969	일본 속 조선 문화사 (日本の中の朝鮮文化社)	문화 /일본어
장학생소식 (奨学生だより)	1969	조선장학회(朝鮮奨学会)	정보 /일본어
한국의 현상과 그 지 류를 탐색하다	1969	제일한국학생동맹 중앙총본부 (在日韓國学生同盟中央總本部)	오피니언 /일본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0년대에 발행되기 시작한 제일잡지는 총 35종에 이른다. 위의 목록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으로 대변되는 좌파계열 단체가 발행한 잡지에 비해, 민단계인 ‘제일한국학생동맹(한학동)’을 비롯한 우파계열 조직이 발행한 잡지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로 『청년문학』, 『조선예술』, 『아동문학』, 『조국』 등 50년대에 발간하기 시작하여 이후로도 긴 시간 발행을 지속하는 조총련계 기관지가 충실한 내실을 갖추며 전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좌파 진영이 새로운 매체를 창간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상 조총련이 발행한 잡지들은 이 시기 발행되기 시작한 대다수 잡지들에 비해 발간 종수에서만 밀리고 있었을 뿐, 문학, 예술, 교육, 여성, 아동 등을 망라하는 폭넓은 영역과 충실한 내용 구성에서 반대 진영의 잡지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는 조국과 제일청년을 강하게 연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1960년 창간된 조총련계 기관지 『새로운 세대』를 살펴봐도 명확한데, 이 잡지는 르포르타주, 시, 회상기, 역사 강좌를 중심으로 잡지를 출발시킨 후, 점차 서평과 독자 참여 공간인 단신, 조선의 전통문예 소개란과 그라비아로 잡지의 내실을 확대해 간다는 점에서 우파 계열과 여타 중립 성향의 잡지 대부분을 질적으로 상회하고 있었다. 이전 시기에 창간한 잡지들이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잡지에서조차 창작과 소비층의 두터움과 출판 여건의 측면에서 좌파계열 잡지들이 명백하게 우위에 서 있었음을 말해주는 사례로, 잡지의 내실을 둘러싼 좌우 출판 시장의 불균형이 온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민단은 한국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 호의를 보이는 종속파와 발전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는 민주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한학동으로 상징되는 민주파가 오히려 다수로, 이들은 5·16 군사 쿠데타로 탄생한 대한한국의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격변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국 통일에 연동될 것인가 하는 관심을 다수 잡지를 통해 표출한다. 예컨대 『직하』를 발간한 게이오의숙대학 코리아학생 클럽은 잡지의 제목을 춘추전국시대라는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가져오고, 자신들이 혼란의 시대에 서 있는 만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그 논조는 한국 정세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여명』, 『광야』, 『조국통일을 향한 길』, 『청구』 등 이 시기에 발행된 우파 내지는 중립 성향의 학생 잡지들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재일조선인의 현실과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조국 통일이라는 과제를 동일선상에서 인식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한학동은 1963년 12월 제 1회 문화제 자료집을 시작으로, 『법적지위문제』, 『한국 경제의 구조와 문제점』, 『한국의 현 상황과 그 저류를 탐색하다』 등 한국의 정치적 정세와 재일조선인의 현실을 잇는 기획 잡지를 연이어 발간한다. 이는 ‘일본에 있는 우리들의 생활감각으로’<sup>14)</sup>,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sup>15)</sup>, 한국의 시민과 연대하여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이 시기 민단 안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과 등거리에 한국이라는 존재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1960년대에 발행된 잡지 중 많은 한국 연구자들로부터 일찍부터 주목받은 매체로 『한양』이 존재한다. “연구의 발표와 논단의 터전을 제공함과 아울러 교포사회 및 조국과의 문화적인 유대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기여하고자”<sup>16)</sup>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이 잡지는, 그 참여한 문제의식과 종합문예지 성격의 내용 구성, 그리고 한글 잡지라는 접근 용의성으로 재일잡지로서는 드물게 한국의 국문학 연구자들에게 먼저 주목받아 왔다. 기존 연구들이 이 잡지를 “60년대 한국문학사의 재구성”<sup>17)</sup> 내지는 “진보적 지성사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요한 매체적 지위”<sup>18)</sup>로 평가한 근거는 『한양』에 재일조선인뿐 아니라 한국 지식인의 글 역시 다수 소개되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의 재일

14) 『광야』 (1964), 창간사

15) 『여명』 (1963), 창간사

16) 『한양』 (1962), 창간사

17) 조현일(2009) 「『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543.

18) 고명철(2009) 「1960년대의 『한양』에 실린 소설의 문제의식-『한양』의 매체사회학적 위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198.

잡지가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다양한 비판적 사유를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장소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 같은 모습은 뒤이은 70·80년대의 주요 재일잡지에 그대로 계승된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매체가 『조선연구』와 『조선연구월보』이다. 이들 잡지의 발행 주체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일본조선연구소’였다. 그 구성원은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사토 가쓰미(佐藤勝巳) 등 당시 일본에서 조선 관련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조선인을 변절자라며 입회를 거부한 사례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재일조선인 회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단체가 창립되자마자 발간하기 시작한 『조선연구』는 1984년까지 간행되었고, 이후 『현대코리아』로 잡지명이 바뀐 후 2007년까지 발행을 지속한다. 지금은 전자잡지로 변신하여, 주로 한일 전문가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재일사회 외부에서 재일조선인의 입장을 바라보는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80년대를 전후하면서 등장하여 이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증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양석일의 개인 문집인 『원점』과 『황해』, 여성의 목소리를 표방했던 『여성』<sup>19)</sup>, 그리고 1세대를 대표하는 문학자 김달수가 주도한 『일본 속 조선 문화』 등이 이 시기 재일잡지의 저변을 보여주는 매체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다양한 한국문화 관련 잡지들이 다수 대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발간된다는 사실도 60년대 잡지 지형의 중요한 특징인데, 정치와 경제,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이들의 지적 향유 속에 이후 재일담론의 중심 좌표를 짚은 세대의 관점으로 옮겨오는 단서가 함의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를 대변한 잡지는 『한국시사』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1960년대는 한국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한일국교정상화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을 둘러싼 재일사회의 좌우 논쟁이 일종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재일사회는 세대와 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정치’라는 좁은

19) 다만 이 잡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김정호의 딸, 근대 한국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서 3.1운동을 전개한 여성과 같이, 전통적인 여성상을 향한 제한적인 조명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 진문 여성 잡지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영역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봐야 했고 재일잡지에는 이러한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다. 한편 이 시기는 2세대의 발언권이 조금씩 부상하고, 일본사회가 바라보는 재일사회라는 관점이 제기되는 등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는 때이기도 했다. 재일사회의 다채로운 시각에 대한 욕구가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으로, 여기에서 얻어진 경험은 1970년대의 본격적인 재일지식인담론의 등장과 함께 열매를 맺게 된다.

### 3. 1970년대 재일잡지와 지식인담론의 출현

세대와 계층을 포함한 재일조선인사회의 본격적인 변화가 불충분한 가운데 재일잡지의 제반 여건 또한 열악했고, 그에 따라 일종의 정체 현상이 두드러지던 시기가 1960년대였던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세대의 삶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가치관과 이를 담아낼 매체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970년대에 들어 조직과 분리된 재일잡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이들 공론장을 통해 봇물처럼 표출되기 시작한다.<sup>20)</sup>

적지 않은 출판물이 범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잡지사에서 1960년대는 일종의 정체기였다. 이 시기에 출현하기 시작한 대학 커뮤니티 주도의 출판물은 도전적인 내용을 담으려 했으나 조악한 수준에 머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문잡지를 지향하면서 생겨난 일반 커뮤니티의 기획 잡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후’<sup>21)</sup> 세대가 ‘재일의 독자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조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해온 관성의 힘이 1960년대의 재일사회를 압도하고 있었다. 여기에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재일사회를 다시 한 번 ‘정치’ 앞으로 집결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잡지창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자 재일사회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 변화는 보다 복

20) 이승진(2017) 「재일조선인잡지 재일잡지 『호르몬문화』 연구」 『日本學報』 113, 韓國日本學會, p.130.

21) 일본은 1945년 8월 패전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戰後’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일본 사회에서의 ‘전후’ 인식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역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간다. 세대 간 구성 비율에서 2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sup>22)</sup>, 재일사회 내부에 계층적인 차이까지 뚜렷하게 부상하면서<sup>23)</sup>, 재일사회를 구성하는 입장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층화 된다. 반면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재일사회에서 강력하게 소구력을 갖게 되면서 재일사회에 정치적 관심이 다시금 고조된다. 즉 재일의 독자성을 재촉하는 내부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외부의 변화를, 다양하게 분출되는 관심사와 개별 이슈들에 아울러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1970년대에 도래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재일잡지는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과제 해결을 위해, 새 시대에 어울리는 재일담론의 확립을 시급하게 모색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 시기는 일본 잡지 시장에 고도의 세분화가 진행된 때였다.

잡지의 미디어적인 특징에는 타깃 독자층의 세분화(segment)가 있다. 독자를 성별, 연령, 직업, 흥미, 관심, 취미, 라이프 스타일, 소득, 재산 등으로 세세하게 한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내실을 살펴보면, 독자층의 세대 구분 세분화와, 동일세대의 내용·독자층의 세분화가 있다.<sup>24)</sup>

19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패션 잡지 시장에 주요 출판사가 끼어들면서, 1970년에 패션지 『an·an』, 이듬해에 『non-no』가 창간되었고, 이들 잡지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이른바 세그먼트지를 중심으로 해당 잡지 시장이 재편된다. 이 같은 흐름은 이내 전통적인 문예지를 비롯하여, 역사, 정치, 예술, 대중문화를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면서 잡지 간 상호 교섭을 추동한다. 그리고 그 결과 잡지 매체는 단숨에 일본 출판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 같이 시기에 다층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한 재일사회, 그중에서도 2·3세대 문화 관심 층들이 일본 잡지 시장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에 자극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일례로 1973년에 창간한 『마당』에서 이 같은

22) 文京洙·水野直樹(2015)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書店, pp.169-170.

23) 文京洙는 위의 책(p.170.)에서 金英達·高柳俊男(1995) 『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 新幹社)에 실린 자료를 언급하며, 북한으로 귀국한 재일조선인의 약 70%가 빈곤층에 속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24) 土屋礼子 編(2018) 『日本メディア史年表』, 吉川弘文館, p.226.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재일조선인들의 문화, 생활, 결혼, 교육문제”를 다루면서 “이테올로지 문제를 지면에서 배제했으며 재일조선인 사회 계층 문제와 같은 사회 내부적 담론 위주로 잡지를 구성”<sup>25)</sup>한 잡지의 방향성은 단순히 기존 재일잡지와 차별화라는 의미망을 넘어,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관심으로의 시선 변화를 표명한 것이었다.

물론 이 시기 훨씬 더 현실미를 띠고 있었던 것은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문제였다.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 이후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재일사회에 팽배하였고, 그로 인해 통일 조국의 미래와 연동된 재일지식인담론의 모색이 대다수 재일잡지의 주된 관심사였다. 다만 실사 조국 통일이 가시화되더라도 남게 되는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의 문제, 다시 말해 정치적 문법으로 포섭할 수 없는 재일사회의 다성적 목소리에 대한 욕구가 『마당』이라는 잡지에서 이른 시기에 제기되었다는 점은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표현으로 그 대답을 제시하려 한 잡지의 방향성은, “향후 점차 약화되어갈 수밖에 없는 ‘민족’과 ‘국가’라는 관념 이후의 존립 근거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첨예한 시대의식에 맞닿아 있”<sup>26)</sup>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1970년대에 발행된 재일잡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1970년대 발행 재일잡지 총 38종】

잡지명	창간년월	발행기관	잡지의 성격/언어
봉선화문예 (鳳仙花文芸)	1970	봉선화문예동인회(鳳仙花文芸同人會)	문예 /일본어
청운(靑雲)	1970	조선장학회(朝鮮獎學會)	문예/일본어
프리라이터 (フリーライター)	1970	프리라이터사(フリーライター社)	오피니언 /일본어
동해(東海)	1970	재일한국청년동맹도쿄특별본부 (在日韓國靑年同盟東京特別本部)	정치 /일본어
한강(漢江)	1970	호세이대학 한국문화연구회 (法政大學韓國文化硏究會)	사회 /일본어
문학작품집	1970	재일한국학생동맹 문학분과회	문학

25) 이영호(2017) 「재일조선인 잡지 『계간 마당(まだん)』 연구-『계간 삼천리(三千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1, 동아시아일본학회, p.244.

26) 이승진(2017) 「재일조선인잡지 재일잡지 『호르몬문화』 연구」 『日本學報』 113, 韓國日本學會, p.132.

한국학생운동사자료 (韓國學生運動史資料)	1971	(在日韓國學生同盟文學文科會) 메이지대학 한국사회문화연구회 (明治大學韓國社會文化研究會)	/일본어 문화 /일본어
오늘의 조선 (今日のチョソン)	1971	『오늘의 조선』 편집부 (『今日のチョソン』編集部)	오피니언 /일본어
우리나라조선 (わが祖国・朝鮮)	1971	이즈미고교 조선사연구회 (和泉高校朝鮮史研究會)	학교문집 /일본어
에밀레(エミレ)	1971	각대학한학동지부결성준비연합회 (各大學韓學同支部結成準備連合會)	기관지 /일본어
새로운 시대 (新しい時代)	1972	한국문화사(韓國文化社)	오피니언 /일본어
소리	1972년 (추정)	7·4회 운영위원회(7·4會運營委員會)	문예/일본어
한국그래프 (韓國グラフ)	1972	한국시사사(韓國時事社)	오피니언 /일본어
새싹들	1974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문학/조선어
백우(白友)	1974	백두학원교우회(白頭學院校友會)	교육/일본어
해협(海峽)	1974	조선문제연구회(朝鮮問題研究會)	역사/일본어
경반논증 (京阪論叢)	1974	재일관서지방 한국유학생회 (在日關西地方韓國留學生會)	논집 /일본어
계간 삼천리 (季刊 三千里)	1975	삼천리사(三千里社)	문예 /일본어
아주까리 (アジュッカリ)	1975	한청동.이카이노지부(韓靑同・生野北支部)	기관지 /일본어
선구	1975	재일한국청년동맹(在日韓國青年同盟)	기관지 /일본어
인권(人權)	1970년 대 중반 (추정)	효고현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兵庫県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오피니언 /일본어
한국문예 (韓國文芸)	1975	소설문예사(小説文芸社)	문예 /일본어
동화(とんふあ)	1976	『동화』의 회(『とんふあ』の會)	아동문학 /일본어
직(直)	1977	『직』 발행소(『直』發行所)	문예/일본어
종성(鐘聲)	1977	종성회(鐘聲の會)	오피니언 /일본어
종성통신 (鐘聲通信)	1977년 (추정)	종성회(鐘聲の會)	정보 /일본어
한국노동문제자료 (韓國勞働問題資料)	1977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선전국 (韓國民主回復統一促進國民會議日本本部宣傳局)	노동 /일본어
재일조선인사연구 (在日朝鮮人史研究)	1977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정치 /일본어
깊이 연대하기 위해 (深く結びあうために)	1977(추 정)	효고의 수업을 생각하는 모임 (兵庫授業を考える會)	교육 /일본어

촛불(炬火)	1977(추정)	주오대학 한국문화연구회 (中央大学韓国文化研究会)	문학 /일본어
와세다제자료집(早稲田祭資料集)	1977	와세다대학 한국문화연구회 (早稲田大韓国文化研究会)	문화 /일본어
목매(木莓)	1978	‘다문화공생을 지향하는’ 재일한국, 조선인 생도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多文化共生をめざす》在日韓国・朝鮮人生徒の 教育を考える会)	교육 /일본어
양춘(陽春)	1979	조선문화연구회 연락협의회 (朝鮮文化研究会連絡協議会)	정보 /일본어
한국문화 (韓國文化)	1979	자유사(自由社)	문화 /일본어
잔소리 (ちゃんそり)	1979	잔소리사(ちゃんそり舎)	문예 /일본어
친구의 소리 (友の声)	1979	가나가와현립고등학교 (神奈川県立高等学校)	문집 /일본어

한편 1975년 2월 재일잡지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잡지 『삼천리』가 창간된다.

총 50호에 걸친 『계간 삼천리』는 당시 한일 양국의 사회상황, 한일 관계사, 한일 문화사, 일본사, 재일조선인 역사, 재일조선인 문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은 종합잡지 성격을 띠었으며, 유수의 일본 지식인들도 대담 및 기고 형태로 참여했던 공간이다. 문제의식의 촉, 구성원들의 다양성, 간행 기간 등의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지니는 잡지로 평가할 수 있다.<sup>27)</sup>

다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삼천리』는 재일 1·2·3세대를 아우르는 문학자와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조국과 일본의 연구자들까지 더해지면서, 대표적인 문예 발표의 장이자 본격적인 재일지식인담론을 주도한 공간이었다. 특히 “‘7·4 공동성명’에 제시된 ‘통일된 조국’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소망”<sup>28)</sup>을 담으며 출발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잡지 초기의 주된 관심사는 조국의 변화에 호응할 수 있는 재일담론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삼천

27) 최범순(2009) 『『계간 삼천리』(季刊 三千里)의 민족정체성과 이산적 상상력』 『일본어문학』 41, 한국일본어학회, p. 398.

28) 『季刊 三千里』(1975) 『創刊のこぼし』, 三千里社

리』가 출발한 1975년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불려온 조국의 정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누그러지는 시점이기도 했다. 게다가 재일조선인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면서 재일세대 전체를 묶어줄 민족의식과 재일의식 사이에 괴리감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따라서 잡지의 구성원들은 점차 재일조선인의 일상에 눈을 돌리면서 ‘민중문화로서의 민족문화’ 찾기에 몰두한다. 『마당』의 ‘정치적 중립성’을 배척하면서 출발한 잡지가,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조응하면서 재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서를 ‘문화’에서 찾은 것으로, 이후 ‘정치’의 시대 다음에 재일의 존립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포함한 재일지식인담론의 이론적 모색이 이 잡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잡지가 1979년 창간된 『잔소리』였다. 이 잡지는 이른바 조국 통일을 표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2·3세대가 바라보는 재일조선인의 현재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면서 발간했다는 점에서 『마당』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계승한 매체였다. 잡지에 대한 재일사회의 반응은 “이런 잡지를 기다렸다는 반응과, 동화를 촉진시키는 잡지일 뿐이라는 비판이 병존했”<sup>29)</sup>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의 편집진은 “일본사회 안에서 2·3세대가 일본인화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교조적인 민족의식으로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전망을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후자가 정당임을 단호하게 선언할 만큼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마당』이 물었던 ‘조국의식’의 비현실성이라는 질문을 훨씬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후 재일잡지가 걸어갈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잔소리』는 재일잡지사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한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재일잡지는 여전히 편중된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는 편이 낫다. 일본의 대중 소비재적 성격의 잡지들과 경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고, 재일사회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이 조국을 둘러싼 담론과 재일사회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강하게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해석 내지는 담론 틀 안에서 이들 문제들을 다루

29) 『잔소리』(1979), 창간호 편집후기

기에는 역량이 부족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많은 잡지들은 기존의 정치적 관점을 관습적으로 반복한다. 예를 들어 『선구』와 『에밀레』는 1960년대의 진보파가 주장했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한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잡지였다. 이는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평화시장 분신자살을 계기로 발간된 『아주까리』와 『한국노동문제자료』와 같은 노동 문제 관련 잡지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으로, 통일 조국이 아닌 독재 국가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이의 제기가 우선 과제였음을 말해준다. 반면 재일조선인의 정주권리를 포함한 시민권 획득과 같은 문제는 이 시기 재일잡지의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권과 국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가 재일사회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재일잡지에 나타난 ‘정치’ 이슈들 역시 매우 선별적으로 다루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일조선인과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이 보조를 맞춘 잡지도 이 시기에 등장한다. 『재일조선인사 연구』와 『해협』이 그것으로, 이 잡지는 박경식과 이순애, 그리고 임전혜와 같이 재일조선인 관련 정치와 역사 영역을 대표하는 연구자들과,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교류했던 장이었다. “재일조선인과 일본의 사회주의자들(피억압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 주류의 모순을 폭로하”<sup>30)</sup>고, “재일조선인 운동이 일본 민주주의를 지키는 운동에 늘 선두에서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sup>31)</sup> 출발한 이 매체들은, 해방 이전부터 50년대까지 이어진 일본의 사회주의 세력과 재일좌파조직의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의 공유 경험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회주의 이상으로의 회귀를 추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대소설을 번역 소개한 『한국문예』와 『문학 작품집』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문화원 설치와 함께 발간된 『한국문화』와 관서 지방 한국 유학생의 논문을 중심으로 엮은 『경반논총』, 그리고 아동잡지 『동화』 등 한국과 재일사회를 아우르는 문학, 문화, 평론집들도 이 시기에 출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노골적으로 한국을 선전한 매체로는 『한국시사』를 발행했던 한국시사사가 간행한 『한국클럽』 정도가 확인되며, 1950·60년대에 발행되기 시작한 조총련계 기관지들 또한 발행을 지속하고 있었다. 요컨대 1970년대

30) 『해협』(1974), 창간호 편집후기

31) 『재일조선인사 연구』(1977), 창간호 편집후기

는 재일사회에서 변화 흐름과 정치적 협소함이 경합하는 가운데, 재일지식인담론이 출현하고 또한 이 담론들이 재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론적 틀을 다져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 발행된 재일잡지에는 재일사회가 직면해야 했던 고뇌와 갈등, 그리고 도전과 변화의 과정이 담겨 있으며, 이 같은 모습은 80년대에 보다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4. 1980년대 재일잡지 지형과 재일문화

조국지향형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둔 종래의 민족단체들의 운동과는 다른 재일조선인들의 활동이 더 널리 확대되고 사회적인 주목을 모으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당시 외국인등록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일외국인(단기거주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지문등록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중략)… 전국 각지의 지방 자치체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여러 세대·입장·주장을 가진 재일조선인들은 재일조선인을 관리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해 주길 바랐고, 지문날인 거부행위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또 일본인들도 그러한 재일조선인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일본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의식에서 그 운동에 참여하였다.<sup>32)</sup>

돌이켜보면 1960년대부터 재일사회는 내외부의 지속적인 변화 흐름에 직면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현실적인 정주 공간으로 바라보는 한, 자식 세대들이 일본에서 성장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의식의 위기’는 언젠가 재일세대 전체의 문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60년대를 전후하여 가속화된 귀국운동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인 움직임이었고, 조총련과 민단 조직 공히 부르짖었던 민족의식의 고양 또한 재일사회가 풍화되어 갈 것이라는 불안감의 발로였다. 하지만 80년대에 세대 간 구성 비율에서 3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sup>33)</sup>, 기존의 순혈민족주의에 갇힌 재일사회의 목

32) 도누무라 마사루(2010)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pp.502-503.

33) 이승진(2015)은 그의 글(「문예지를 통해 본 재일의식의 양상」 『일본어문학』 67, pp.16-17.)에서 “1980년대는 재일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였다. 세대 간 구성 비율에서 재일 3세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기존 ‘재일조직’과 ‘재일의 집’이 발신하는 민족적 호소력이 두드러지게 감퇴하기

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힘을 잃기 시작한다. 예컨대 80년대 초반 일어난 ‘지문등록 거부운동’과 이를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은, 재일조선인의 인권 문제를 ‘시민권 획득’에까지 시야에 두면서 전개한 운동이었다. 재일사회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주요 재일조직들이 벌여온 기존의 법적지위투쟁의 범위를 한참 뛰어넘었고, 그런 의미에서 국적과 민족이라는 관념에 묶여 있었던 재일운동의 방향성에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왔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재일문화와 담론을 다층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방면에서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재일잡지는 이러한 변화 요구에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다.

한편 80년대 일본 잡지 시장은 기존의 가파른 성장에 더해, 출판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시작한다.

80년대는 “잡고서저(雜高書低)”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연간 2000종 이상의 잡지가 창간되었고, 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광고 수입을 기대하는 잡지창간이 이어지면서, 분야의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잡지의 시대”는 제4차 문고 붐, 코믹스 붐, 소설 신서 붐과 연동해 도래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기 간행화와 대량생산, 엔터테인먼트적인 내용 중심의 저가 정책과 소비재화이며,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적을 포함하여 ‘충잡지화’ 현상 속에서, 잡지 중심의 메이저 출판사에 비해, 서적 중심의 중견 출판사와 전문서 중심의 중소출판사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 상태에 빠져있었다.<sup>34)</sup>

70년대부터 가속화된 세그먼트화의 흐름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잡지 출판으로 이어졌고, 대중문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잡지가 미디어믹스의 중심 고리에 위치하면서 ‘충잡지화’ 현상이 일본 출판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 가파른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던 재일잡지는 일본 출판 환경의 변화까지 의식하면서 잡지의 편집 방침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 기존의 대다수 재일잡지들이 결국 정치와 역사, 그리고 그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압력에 의해 일본 정부의 재일정책이 유화 정책으로 전환된 것도 이때였다. 나아가 재일의 실제적인 국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재일조직을 둘러싼 힘의 균형이 민단 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80년대는 재일사회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 변화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속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80년대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34) 藤竹暁(2012)『図説 日本のメディア』NHK出版, p.123 .

연장선에서 문예와 생활을 포착하는데 머물렀다면, 80년대부터 문화와 생활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식이 폭넓게 공유되면서 실제 잡지 내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1980년대가 재일잡지 발간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잡지들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도 전에 3세대를 중심으로 집단 정체성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이 토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여전히 집단담론의 발신지를 자임하고 있었던 주요 잡지로부터 독자의 급속한 이탈을 불러오게 된다. 여기에 사회구성원의 다층화 및 파편화에 일찍부터 대비하고 있었던 일본 잡지 시장의 활황이라는 외재적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재일잡지는 일본 서적 시장의 ‘총잡지화’ 시대에 거꾸로 ‘총침체화’의 늪으로 서서히 걸어들어 가게 된다.

여기에서 1980년대에 간행된 재일잡지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1980년대 발행 재일잡지 총 38종】

잡지명	창간년월	발행기관	잡지의 성격/언어
계간 재일동포 (季刊 在日同胞)	1980	한국사료연구소(韓國史料研究所)	/일본어
자유의 나무 (自由の木)	1980	한국민주화투쟁지원 재일청년학생연락회의 (韓國民主化鬪争支援在日青年學生連絡會議)	오피니언 /일본어
민족통일 (民族統一)	1980년대 초반 (추정)	민족통일심포지엄(民族統一シンポジウム)	오피니언 /일본어
월간 서당 (月刊 ソダン)	1981	조선·아시아 관계 도서센터 (朝鮮・アジア関係図書センター)	오피니언 /일본어
나그네통신 (ナグネ通信)	1981	동인나그네(同人ナグネ)	문예 /일본어
씨알의 힘 (シアレヒム)	1981	씨알의 힘사(シアレヒム社)	문예 /일본어
화랑도(花郎徒)	1981	게이오의숙대학 고려문화연구회 (慶應義塾大学高麗文化研究会)	문화 /일본어
고개	1982	아이치현 한국인권익옹호위원회 (愛知県韓国人權益擁護委員会)	오피니언 /일본어
한국 신문을 통해 본 한국과 일본 (韓國の新聞から見た 韓国と日本)	1982	한국 신문을 읽는 모임 (韓國の新聞を読む会)	정보/ 일본어
셋별	1980년대 초반 (추정)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인권획득투쟁 전국연합회 (在日韓国人・朝鮮人の人権獲得鬪争全国連合会)	인권 /일본어
계간 메아리	1983	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	아동

(季刊 메アリ)			/일본어
동인나그네 (同人ナグネ)	1983	동인나그네(同人ナグネ)	문학/일본어
통일평론북클럽 (統一評論ブックレット)	1983	『통일평론』 편집부편 (『統一評論』編集部編)	오피니언 /일본어
교류(交流)	1984	‘고교생교류모임 실행위원회 (“高校生交流の集い”実行委員会) 日本の学校に通う朝鮮人・韓国人生徒交流の集い報告集	교육 /일본어
지문문제토의자료 (指紋問題討議資料)	1984	지문날인거부예정자회 (指紋捺捺拒否予定者会議)	인권 /일본어
짜리꽃(サリコ)	1984 (추정)	짜리꽃 아동문학회(サリコ児童文学会)	아동문학 /일본어
휴먼 리포트 (ヒューマンレポート)	1984	휴먼 리포트사(ヒューマンレポート社)	문화 /일본어
강항과 후지무라 세이카 (姜杭と藤原惺高)	1984	강항선생 문화교류비건립위원회 (姜杭先生文化交流碑建立委員会)	역사/ 일본어
온돌방 (オンドルバン)	1984(추 정)	재일동포의 생활을 생각하는 모임 (在日同胞の生活を考える会)	생활 /일본어
재일동포의 생활을 생각하는 모임 통신 (在日同胞の生活を考 える会通信)	1984	재일동포의 생활을 생각하는 모임 (在日同胞の生活を考える会)	정보 /일본어
코리아연구 (コリア研究)	1984	코리아연구소(コリア研究所)	오피니언 /일본어
현대코리아 (現代コリア)	1984	일본조선연구소(日本朝鮮研究所)	오피니언 /일본어
역사비판 (歴史批判)	1985	역사비판발간회(歴史批判発刊会)	역사 /한국어
과학기술 (科学技術)	1985	재일조선인과학기술협회 (在日朝鮮人科学技術協会)	과학 /일본어
기초 한글 (基礎ハングル)	1985	삼수사(三修社)	교육 /일본어
CRIO	1985	케이제이 서비스 센터 (ケイ・ジェイサービスセンター)	생활정보 /일본어
너하고 나하고	1986	고베공업고등학교 조선문화연구부	서클문집

		(神戸市立神戸工業高等学校朝鮮文化研究部)	/일본어
코리아 취직정보 (코리아就職情報)	1986	코리아 패밀리서클(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취업정보 /일본어
코리아나(コリアナ)	1987	한국국제교류재단(韓国国際交流財団)	문화/일본어
힘(ヒム)	1987	힘기획(ヒム企画)	취업정보 /일본어
우리생활 (ウリ生活)	1987	재일동포의 생활을 생각하는 모임 (在日同胞の生活を考える会)	문예 /일본어
아시아문제연구소보 (アジア問題研究所報)	1987	아시아문제연구소(アジア問題研究所)	오피니언 /일본어
민도(民濤)	1987	재일문예민도사(在日文芸民濤社)	문예 /일본어
미래(MILE)	1988	KYCC	문화/일본어
계간 청구 (季刊 靑丘)	1989	청구문화사(靑丘文化社)	문예 /일본어
고려미술관 (高麗美術館)	1989	고려미술관(高麗美術館)	미술 /일본어
안녕! (アンニョン！)	1989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	기관지 /일본어
새누리(セヌリ)	1989	새누리 문화정보센터 출판국 (セヌリ文化情報センター出版局)	정보 /일본어

1987년에 찾아온 『삼천리』의 종간은 60년대 이후 재일사회가 만들어온 담론 공간과 집단 의식이 유효기간을 상실했음을 가리키는 사건이었다. 다변화하는 재일의식을 담기에 주요 잡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지식인 계층에 남성이었고, 이들이 변화를 위해 선택한 ‘문화’에 대한 천착 또한 집단으로서의 재일사회라는 전체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잡지의 창작과 소비 양쪽에서 집단 정체성이 눈에 띄게 퇴보하는 가운데, 이들의 관습적인 외침은 점차 외면당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다. 즉 ‘누가’, ‘무엇을’, ‘새롭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삼천리』의 종간이라는 사건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삼천리』의 뒤를 이어 『청구』와 『민도』가 창간되고, 각각 “『마당』, 『삼천리』, 『잔소리』에서 강조되었던 담론지점(조국/민족주의, 역사와 이념)과 1990년대에 간행된 『호르몬문화』, 『아리랑』의 문제의식(탈식민주의, 세계주의)의 중간지점”<sup>35)</sup>과 “‘조국’지향의 민족의식에서 차츰 멀어져가는 젊은 세대의 의식을 경계하면서도 이를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으

35) 김환기(2014) 『『靑丘』와 재일코리아인의 자기정체성-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22,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4, pp.171-172.

로 이해하고, 이제 ‘인간’이라는 보편적 차원에서 재일코리안의 존재성과 문화를 바라보고 새롭게 정위하고자 하는 논조”<sup>36)</sup>를 지향한 점은, 이 시기 재일잡지를 둘러싼 위기 상황을 주요 문화 담당 층 또한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집단담론의 표출 장으로서 재일잡지의 위상 변화는 자연스럽게 전체 재일잡지 시장의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잡지 시장이 활황으로 접어들면서도 전문서 중심의 중소출판사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사실은 정치, 역사, 시사, 문예 등 순정하게 정제된 표현 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세분화됨으로써 이들 영역의 출판물까지 대량 소비재화 될 것임을 의미했다. 가령 하나의 문화 관련 영역 독자층을 세대, 계층, 성별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나누고, 이러한 성향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잡지를 마치 종합세트처럼 기획하고 만들어냄으로써 전체 출판 시장은 지켜내는 구조가 성립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규모 출판사와 중견·중소 출판사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중소출판사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고, 독자의 이탈까지 가속화하고 있었던 재일잡지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발간 종수만 고려한다면 1980년대에도 다양한 표현 주체들이 재일잡지의 창간을 이어갔으나, 이미 침체화의 길목에 들어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젊은 세대의 문화와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등장한 『코리아 평론』, 『재일동포』, 『휴먼 리포트』, 『우리생활』과 같은 잡지에는 이 같은 흐름을 막아보고자 했던 도전과 저항이 담겨 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생활』은 창간호 특집에 ‘결혼을 생각하다’를 구성하면서 출발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새로운 세대의 결혼관에 착목하여 재일사회의 현실을 물음으로써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화제 발굴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는 생활정보지 성격의 『힘』과 『CRIO』같은 잡지에서 동포들의 만남과 맞선을 주선하는 기획에서도 보이는 특징으로, 문예지와 정보지를 가리지 않고 훨씬 더 일상적인 생활 감각으로 포착 가능한 재일조선인의 관심사 찾기에 재일잡지들이 몰두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반면 1980년대 역시 정치라는 문법이 재일사회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었고 재일잡지 또한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김대중 납치사

36) 신승모 「재일문예지 『민도(民濤)』의 기획과 재일문화의 향방」 『日本學研究』43,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p.90.

건에 대한 한국의 언론 침묵을 대체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씨알의 힘』과 광주항쟁의 진실을 발신한 『자유의 나무』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재촉해온 재일잡지의 80년대식 표현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는 재일조선인들이 직면해야 했던 수많은 난제들이 재일잡지의 위기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시기였다. 집단 의식의 시대 이후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가 의지할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다양한 발행 주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 했다. 이 시기의 재일잡지에는 수많은 재일조선인들이 이 문제에 당당히 대면했던 흔적들이 아로새겨져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 80년대 재일잡지의 매체사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재일사회는 북한으로의 귀국사업과 한일국교정상화, 7·4남북공동성명과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정치 환경의 변화를 마주해야 했다.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만 상정해온 내셔널 아이덴티티 문제를 재구성하고, 정주국인 일본사회에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재일사회의 미래를 모색했던 때로 이 시기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1970·80년대는 재일내부에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때였다. 자식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2·3세대가 재일사회의 구성 비율에서 점차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들에게 재일사회와 조국 그리고 일본은 전혀 다른 질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재일사회의 균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재일잡지는 이러한 변화를 침묵하게 비추면서 전개한다. 총 110여종이 넘는 잡지들이 이 시기에 발간되었는데, 조총련계 기관지를 제외한 다수 잡지들이 정치 일변도의 내용 구성에서, 서서히 재일조선인 자식세대의 발언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의견들이 다시 새로운 ‘재일 의식’을 추동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재일사회는 정치담론과 문화의식에서 서서히 변용을 맞게 된다. 요컨대 ‘민족’과 ‘조국’이라는 관념을 넘어, ‘재일’이라는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이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이 시기 재일잡지에는 당대의 재일조선인이 마주쳐야

했던 고민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고명철(2009) 「1960년대의 『한양』에 실린 소설의 문제의식-『한양』의 매체사회학적 위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198.
- 김환기(2014) 「『靑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22,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4, pp.171-172.  
(DOI:http://dx.doi.org/10.32624/stofja.2015..24.273)
- 도누무라 마사루(2010)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pp.502-503.
- 신승모(2013) 「재일문예지 『민도(民濤)』의 기획과 재일문화의 향방」 『日本学研究』43,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p.90.
- 이영호(2017) 「재일조선인 잡지 『계간 마당(まだん)』 연구-『계간 삼천리(三千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1, 동아시아일본학회, p.244.  
(DOI:http://dx.doi.org/10.32624/stofja.2015..24.273)
- 이승진(2015) 「문예지를 통해 본 재일의식의 양상」 『일본어문학』 67, 한국일본어문학회, pp.16-17. (DOI : http://dx.doi.org/10.18704/kjill.2015.12.67.291)
- \_\_\_\_\_(2018) 「전후 재일잡지미디어 지형과 재일사회-1959년까지의 태동기를 중심으로」 『韓日民族問題研究』 35, 韓日民族問題学会, p.119.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24.847)
- 조현일(2009) 「『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543.
- 최범순(2009)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의 민족정체성과 이산적 상상력」 『일본어문학』 41, 한국일본어문학회, p.398.
- 姜尙中(2004) 『在日』 講談社, pp.34-35.
-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 『在日コリアン辞典』 編集委員会(2010) 『在日コリアン辞典』 明石書店, p.74
- 土屋礼子 編(2018) 『日本メディア史年表』 吉川弘文館, p.226.
- 文京洙·水野直樹(2015) 『在日朝鮮人-歴史と現在』 岩波書店, pp.169-170.
- 藤竹暁(2012) 『図説 日本のメディア』 NHK出版, p.122.
- 四方田犬彦 編(2018) 『1968年 文化』 筑摩書房, p.353.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4.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

 <要旨>
 

---

## 1960~80年代の在日雑誌メディア地形と在日文化

李丞鎮

本稿の目的は、1960年から1989年の間に発刊された在日雑誌の全貌を考察し、そのメディア史的意味を問うことにある。1960年代は、北朝鮮への帰国事業や韓日国交正常化が、1970年代は7.4南北共同声明や市民権獲得をめぐる葛藤が、1980年代は指紋捺印制度をめぐる在日人権問題や世代対立といった問題など、それぞれの時代の主要な 이슈を中心に、さまざまな在日雑誌が在日社会の中で展開されてきた。換言すれば、1960年代以前からの在日組織が主導する硬直した空気と、在日社会の左右対立の宥和といった新しい雰囲気が並存する中で出発した在日雑誌は、1970年代の知識人談論を中心とした精緻な公論の場の性格を経て、1980年代には国際主義的な立場で、新しい在日世代の表現を模索する方向に、絶えず、変容を試みてきたことがわかる。それは「民族」や「祖国」という観念を越え、「在日」という現実、自らの存立根拠を示す方向への変化であってといえよう。この研究はこの時期の在日雑誌メディアの地形を提示することで、その実体を実証的に提示したものであり、戦後の在日雑誌の全体の流れを眺望できるように、1990年代以降の在日雑誌地形の整理することを、今後の課題にしたい。

*Zainichi* magazine topography and *Zainichi* culture during 1960s-80s

Lee, Seung-J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ull picture of a *Zainichi* magazine in Japan, published between 1960 and 1989, and to question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1960s, disputes over the return of businesses to North Korea an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ere raised in the 1970s, with major issu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and generational conflicts in the 1980s. In other words, the magazine, which began in the 1970s with a new direction amongst the rigid atmosphere led by organizations in Japan since the 1960s and the harmony of the left and right conflicts, in *Zainichi* society developed. This is a change that transcends the concepts of “ethnicity” and “one’s native country” and reveals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resident Koreans.” The study demonstrated *Zainichi*’s true nature by presenting the topography of the journal during this period.